

종교적 경험의 생물학

| 유진 다킬리, 앤드류 뉴버그 |

| 이명수 '지금여기' 번역위원, 김태훈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한방내과 옮김 |

우리는 저 밖에 '세상'이라는 것이 있고, 이 안에 세상을 지각하는 '주관'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정말 분리된 두 세계일까요? 주관과 객관의 범주를 벗어나 이 둘을 이어주는, 아니 이 둘이 함께 현상화되는 기반세계로서 우주적인 순수의식의 존재를 실감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2부)

주관적인 자각을 우선시 하는 경우

주관적인 자각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그것과 물리적 현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의 이익과 불이익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익은 주관적인 자각의 발달을 설명할 때 발생하는 곤란한 문제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자각이 만물에 관통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외부의 물리적 현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현실에서 생겨나는 주관적인 인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자각으로

부터 야기되는 물리적 현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모든 물리적 현실이 현재의 주관적인 자각 안에 존재한다. 이때 그 물리적 현실에는 뇌와 모든 과학의 법칙, 외부의 물질적 타자에 대한 강력한 감각, 완결된 사건에 대한 과거, 그리고 가능한 미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때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은 최소한 분석하는 인식주체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이 되고, 주관적인 자각 이외의 다른 현실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인식 밖으로 한 발짝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현실(그것의 과거와 미래), 자연법칙과 과학 그 자체를, 현존하는 주관적 자각의 한 측면으로 보도록 강요하게 된다.

서양과학을 공부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주관적인 자각 안에 존재하는 외부 현실로서의 타자에 대한 생생한 감각은, 주관적 자각의 동형 대상인 외부를 반영한다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유일하게 견지 가능한 강력한 입장이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 행위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현상학적인 접근을 하고자 원한다면 상응하는 대체 현실의 존재를 판별하기 위해 주관적인 자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분명 불가능하다. 주관적인 자각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의 분명한 이득은, 이러한 체계 내에서는 단절이 없다는 것이다. 거기서는 빅뱅 자체도 주관적 자각의 한 측면이 된다. 비록 몇몇 원인 때문에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들과 다소간 다를지라도, 빅뱅은 그 자체가 인류의 원칙을 강하게 지지하는 결론인 주관적인 자각의 한 측면이 된다. 그리고 주관적인 자각을 우위에 두면 물질적인 외부는 그 자체가 주관적 자각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물질계로

부터 진화하는 주관적 자각이라는 의문은 없게 된다.

그러한 접근의 주요한 불이익은 유아론(唯我論) 혹은 유아론적인 행동에 있다. 만일 주관적으로 자각하는 철학자가 상호작용해야 하는 외적현실로서, 주관적으로 자각하는 다른 존재의 세계가 있다면, 유아론적 신념에 기반한 어떤 행동도 정신병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묻는다: 외부의 물질세계를 우위에 둘 때와 주관적 자각을 우위에 둘 때, 이 두 경우 모두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주관적인 자각과 물리적 현실 문제로의 통합된 접근

주관적인 자각과 물리적인 현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시도하는 한 가지 길은 절대적인 통일존재(AUB: Absolute Unitary Being: 종교적 신비체험을 통해 경험되는 절대적 무아의 통일감-편집자주)를 고려해보는 것이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AUB는 분명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시간이 흘러가는 감각, 공간이 연장되는 감각, 자신과 남에 대한 구분과 같은 것이 없는 순수자각의 상태이다. 줄여서 말하면, 그것은 순수자각 혹은 내용 없는 자각이다. 그것의 존재는 다양한 문화에 공통적인, 세계의 위대한 종교의 신비한 문학작품이나 생동감 있는 신비론 등에서 광범위하게 증명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상태가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신경생리학적인 모델은 티벳 불교 명상 수행자들에 대한 뇌-영상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것이 드물게 나타나는 상태이긴 하지만 AUB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관점에서 본다면 AUB는 흥미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AUB를 경험하는 동안 혹은 그 경험 뒤

에 이어진 회상의 시간 어느 쪽도 이러한 상태를 주관적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비록 주체 내에서 깊게 진행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얻어지게 되면 주관적이라고도 혹은 객관적이라고도 느껴지지 않는다. 사실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AUB 혹은 순수자각은 주체나 객체에 앞서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어떤 것에 대한 자각은 분명 주관적인 상태에서 인식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급이 이해하기 어렵듯이 AUB 이후 명상수도자에 의해 그것이 분석되었을 때 순수한 자각은 주체이지도 혹은 객체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범주를 빠져나온 사람이 접근했던 유일한 상태인 것 같다.

만일 우리가 물리적 현실에 존재론적 우위를 주는 관점에서 AUB를 접근한다해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주체도 객체도 아니어서 AUB 혹은 순수자각은 결코 후상두정엽의 감각신호를 차단하는 단순한 기능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AUB의 물리적 추정 원인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을 때 절대적 현실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만일 반대로 주관적인 자각에 존재론적 우위를 두고 AUB 혹은 순수자각을 접근한다면 우리는 AUB 혹은 순수자각이 절대적인 현실을 대표하며, 그 자체는 주관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고 주체와 객체 모두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지어야 한다.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접근법은 개인적, 주관적 자각과 외부의 물리적 현실이 순수한 자각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주관적 자각과 순수자각을 구분해야 한다. 사실 외부의 물리적 현실을 우위에 두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아 혹은 (주관적인 자각의 궤적으로서) 의식적인 자아는 우위에 있지 못하

고 물리적인 자아로부터 야기된 실용적인 구조이다. 어떻게 자아 또는 의식적인 자아가 진화했을 것인가를 상세하게 다루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반드시 의식적인 자아가 구성되기 이전에 어떠한 뇌의 구조가 진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루리아(Luria)와 다른 사람들이 시연해 보였던 하부두정엽이 궁극적으로 요약 분류(abstract classification)와 더 광범위하게는 구상화(reification)하는데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급했듯이 정신/뇌는 그것의 기능을 관찰하고, 이러한 기능은 정신/뇌로 돌아가는 입력신호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정신/뇌의 다양한 구조들은 하부두정엽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감각 통합영역들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들은 산딸기나무, 자작나무, 미국 삼나무들을 모두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서 결국에는 언어 중추를 통하면 나무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신/뇌의 인지된 다양한 기능들의 구체화가 의식적 자아인 것이다. 일단 이러한 구체화의 구조가 완성되면 무한한 여분과 함께 작용할 수 있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깨닫는 자아를 의식하게 되고 그 이상으로 진전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심지어 외부 물질세계를 우위에 둔 관점에서조차 의식적 자아는 진화과정의 한 구조물이며, 항상 ‘타인’을 의식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순수자각 또는 AUB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관적 자각과 물리적 현실의 관계에 접근할 때 현실을 우위에 두거나 혹은 주관적 자각을 우위에 두는 관점에서 모든 개인적인 의식 혹은 자아는 한편으로는 유기적인 진화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자각으로부터 이차적인 현실을 얻어낸다는 것은 자명하다.

AUB 또는 순수자각에 대한 현상학적인 분석으로 돌아가면 자아 또

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식과는 달리 순수자각은 비국소적이고 무제한적이라고 결론지을 것이다. 또다시 이것은 서양과학의 견지에서 보면 직관에 어긋나지만, AUB의 상태에 대한 현상학적인 분석으로부터, 그리고 현실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론적인 분석으로부터 찾아낸 결론인 것이다. 이것은 순수자각, 곧 AUB가 국소적이지 아닐 뿐 아니라 창조적이라고 추측하기 위해 많은 신비주의자들과 철학자들이 시도했던 형언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현상학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한 멀리 나간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주관성과 객관성에 선행하는 순수자각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범주들을 만들고 그 내용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 영원히 창조하는 신 또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존재의 기반이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 글은 주관적 자각과 물리적 현실이라는 개념 사이의 전 환점이 되었다. 우리는 주관적 자각은 정신/뇌, 유기적인 진화(물리적 현실이 우위에 있는 경우)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먼저 이해될 수 있고, 그 다음 자아를 아는 것에 대한 현상학적인 분석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주관적 자각이 우위에 있는 경우)이 두 번째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이제 자각을, 심지어 그것 자신의 근본적인 기계인 뇌에 연결시키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앎'을 진지하게 숙고해본 개인적 주체에게는 외부현실이나 주체 자신의 주관적 자각 그 어디에도 절대적인 우위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두 가지 모두 서로의 우위를 요구하지만, 어느 것에도 그 우위가 속해 있지 않다. 분명히 주관적 자아가 속한 문화에 따라 어떤 것의 우위가 결정되는 듯하다. 극동지역의 문화는 의식(意識)이나 주관적 자각을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다. 서양의 문화는 외부현실에 우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문화적인 편견이나 개인

적인 기호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선택할 길이 없다. 과학자로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행위’를 외부현실에 그 우위를 주기로 의식적 선택을 해왔다. 이러한 접근법이 비록 우리 삶의 다른 측면에서는 최상이 아닐지라도 더 나은 과학을 허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왔다. 과학을 수행하는 것은 최소한 부지중에라도 외부현실에 우위를 두는 ‘믿음’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앎을 우리는 유지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어떤 과학자들은 의식에 그 우위를 두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외부현실에 우위를 두는 것으로 유지하며, 최소한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저변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우리는 의식보다 외부현실을 우위에 두는 서양의 전통 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접근은 과학적이었다. 그러나 서양의 전통 내에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외부현실을 가지고는 더 이상 전진해 갈 수 없으며, 의식의 현상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된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러한 시점은 과학자 또는 철학자들이 현실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도록 강요 받는 때에 시작된다.

현실의 본질과 정도

철학의 가장 오래된 문제들 중의 하나는 외부세계가 우리의 정신적 표상에 상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 이래로 다양한 답변을 통해 무엇이 참된 현실인가에 대한 문제는 깊이 다루어져왔다. 무엇이 현실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상식적인 세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생생한 감각

2.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의 지속성
3. 상호주관적으로(intersubjectively)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한 서로간의 동의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무엇이 현실인가를 판별하는 이러한 기준 중 세 가지 모두는 첫 번째 것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생생한 감각, 예를 들면 시간 속에서 지속되는 감각은 기초현실(baseline reality) 속의 시간의 구조화에 달려있다. 시간감각 혹은 더 적절하게 표현해, 시간의 지속은 뇌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였다. 그래서 어떠한 원인에서든지 뇌의 이 부분의 기능이 변경되면 시간의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AUB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통일의 상태에 있는 동안 시간감각이나 지속되는 느낌이 없다. 시간감각이나 지속되는 감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뇌의 기능으로부터 유래한 지각 특질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자체가 기초현실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특질 중 하나인 시간으로부터 기초현실이 유도된다는 논점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 똑같은 비판은 뇌에 의해 구성된 기초현실이라는 특성에 의지하고 있는 물체의 현실에도 적용된다.

현실에 대한 세 번째 기준(상호주관적인 유효성)은 그 문제를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야기된다. 어떤 존재가 실재하는지 동의하거나 하지 않는 ‘주관적 자아’는 그 자신이 오직 분석하는 철학자의 감각 인식적인 영역 내에 있는 이미지거나 표상일 뿐이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는 어떠한 사람은 최소한 순진한 유아론자(唯我論者)로서 출발해야만 한다는 것은 불행히도 사실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 존재가 현실이라는 판

단기준은 말 그대로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생생한 감각으로 귀결되는 것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많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 뒤따른다. 현실에 대한 생생한 감각은 여러 해 동안 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언급되었다. 스토아학파의 사람들은 그것을 판타시아 카탈립티카(phantasia catalyptica)라고 언급하였고, 어떤 현상학자들은 의도성이라고 이해했으며, 어떤 현대 독일 철학자들은 그것을 안베센하이트(Anwesenheit)라고 부른다. 무엇이냐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현실에 대한 생생하고 투명한 감각을 생성하는 확고한 현존이다.

만일 우리가 현실은 궁극적으로 현실에 대한 생생한 감각에 국한된다고 억지로 결론내도록 압박 받는다면, 그들을 기초현실 안에서 기억해낼 때조차 주관적 자아를 기초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만일 우리가 기초현실을 우리의 참조점으로 삼는다면 이러한 상태들이 기초현실에서 회상되었을 때, 어떤 경우는 기초현실보다 못한 현실로 보이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기초현실보다 더한 현실로 보이는 상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경험하고 있을 동안에 현실로 보이는 의식 상태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초현실 내에서 회상되었을 때 기초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의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들은 항상 기초현실의 범주 내에서 회상하고 토의했을 때 꿈이 기초현실보다 하위에 있다고 말한다. 정신병의 환각상태도 페노티아진이나 다른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그들이 치료된 이후에 보자면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그러한 상태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은 그것을 정신병적인 것으로 회상할 것이며, 때때로 ‘내가 그때 미쳤었지’, 혹은 ‘물론 그 음성이나 환상은 현실이 아니었

절대적 통일상태를 경험하는 종교적 신비체험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그 생생한 감각이
일상의 현실감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으로
하위 현실인 꿈과 달리 상위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어, 나는 정신병의 상태에 있었어'라고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기초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기초현실로 돌아오고 나서도 경험자들에 의해 더 생생하게 묘사되는 의식의 변화된 상태에 대하여서는 똑같이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관찰은 우리가 다른 글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상태에 대해 진실이다. AUB의 경험에서는 확실하게 진실이다. 우주적인 의식, 어떤 황홀경의 상태, 과도하게 투명한 시각(보통 종교적인 형상, 종교적인 상징, 죽은 사람들), 핵심적인 임사체험(NDE)에서는 진실이다. 기초현실에서 회상하였을 때 이러한 경험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보여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꿀 정도까지 이른다. 예를 들면 핵심적인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체험 전에 그들이 행하였던 것보다 분명하게 더욱 이타적이고, 친절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더 큰 헌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게다가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저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건전한 변화들은 임사체험 이후 짧은 시간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된다. 아마도 경험자들의 삶을 통틀어서 그들 자신이 인내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만일 현실이, 현실로 판단되어지는 기준의 모든 것을 현실에 대한 생생한 감각으로 축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러한 순수자각 상태들은 우리 매일의 기초현실보다 더욱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현실이라는 단어는 시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바위와 이 탁자는 실재이다라고 할 때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다음 글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대 신학이 신경신학에서 파생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때 우리는 기초현실과 투명한 통일된 상태의 참된 속성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외부현실을 우위에 두고 시작하든지, 주관적인 자각을 우위에 두고 생각하든지 간에 현실은 애매한 개념이고, 때때로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심오하게 직관에 반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어떤 사회 문화가 외부현실과 주관적 의식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두느냐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된 이론적인 이상한 결론이 있다. 처음의 경우에는 신에 대한 개념과 경험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현상은 뇌와 신경계로부터 생겨난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AUB 혹은 순수한 의식)이 세상과 (뇌를 포함해서) 주관적 경험 그 자체를 창조하였다고, 현상학적인 반영으로부터 동등한 확실성을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떠한 출발점, 곧 외부의 현실이나 또는 주체의 자각이 더 근본적이냐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은 세상(뇌와 여타의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신(AUB)에 대한 두 가지 결론은 심오하고 근원적인 의미에서 참되다라고 억지로 결론지어야 한다. (끝) 

- 이 글은 'The Mystical Mind'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제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유진 다킬리**(Eugene D'Aquili, M.D., Ph.D.,) | 최근 사망하기 전까지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과 임상교수였다. 종교에 대한 신경학 연구의 개척자이며, 25년간 이

분야의 학술논문과 전공서를 발간했다. 저서로는 《뇌, 상징 그리고 경험》이 있다.

저자 | 앤드류 뉴버그(Andrew B. Newberg, M.D.,) | 펜실바니아 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 방사선과 임상조교수이다. 그는 다킬리와 함께 많은 연구서를 펴냈으며, 종교적 체험을 생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선구적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역자 | 이명수 | 1967년생.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수의학대학 생리학교실, 원광대학교 생명공학연구실 기의학분과와 통합의학연구소, 영국 엑시터앤 플리머스대학 페닌sula 의과대학 보완의학과 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학술활동으로는 FACT (Focus on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Therapies, Pharmaceutical Press, UK) 와 CTIM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Elsevier, UK)의 International Editorial Board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International Society for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 (ISCMAR)의 Founding member 이다.

역자 | 김태훈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한방내과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The Mystical Mind

Eugene D'Aquili and Andrew B. Newberg 저 | Fortress press 刊

| \$22.00

선구적인 두 의학연구자에 의해 쓰여진 이 책은 종교적 경험의 신경생리학적 측면을 탐험하고 있다. 뇌의 기본 기능지도를 작성하며 저자들은 인간의 경험과 정서, 인식에 가장 일치하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그들은 뇌가 어떻게 신비체험에 관여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신화와 의식(儀式), 성체예식, 명상, 암사체험과 신학 자체까지 탐사하고 있다. 저자들의 대담하고 널리 인정되고 있는 연구는 철학과 과학, 종교의 미래를 위해 흥미로운 암시를 해주고 있다.

